

대한민국의 의표를 찌른 송곳




할 일을 했는데 우리도 놀랐습니다.
뜻대로 했는데 세상이 놀랐습니다.
시대의 낭중지추, 아주대학교
헌신으로 뜨겁게, 연결로 새롭게 -
세계를 찌를 '송곳' 을 키워갑니다.

 **아주대학교**
www.ajou.ac.kr 031-219-2021

1. 4대 로스쿨을 넘어 -
정의로운 법조의 양성의 신념과 헌신으로 변호사 시험 누적 합격률 92%를 기록, 법조계를 놀라게 한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제 신산업과 연결로 미래를 열어갑니다.



2. 생명에서 미래까지 -
오직 의사의 본분을 실천해 이 땅에 생망과 의료의 존엄성을 높여온 이국종(88) 교수팀의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아주대병원이 빅데이터센터와 함께 첨단 의생명융합 세계를 펼쳐 갈 것입니다.



AJU ABC **과관학기제** **Global Internship**

헌신과 연결로 거대 연구 집단의 신세계를 열어갈 아주 빅데이터센터

스스로 설계하고 스스로 공부하는 도전학기제

큰 사회, 큰 인재를 키우는 글로벌캠퍼스 에프터유-과관사다리

다양한 직종을 세계의 현장에서 글로벌인턴십

아주대-미국 명문대 학위 동시 취득 복수학위제



봄여름가을겨울
<아주인사이트> 2019(4352) 신년호 통권26호

AJOUINSIGHT.
AJOU UNIVERSITY QUARTERLY MAGAZINE 2018-19 120102 Vol. 26



연결된 교육·연구·문화로
다방면 진출하는
멀티플레이어를
2019 신년사
박형주 아주대학교 총장



우라에게는
만손이
있다
특별 인터뷰
치유자 정혜신



4	8	10	12	14	15	17	18
특별 인터뷰	아주의 울타리를 떠나며 I	아주의 울타리를 떠나며 II	과짜 같은 진짜	연구뉴스	뉴스	안내	50-100 술선give
 정혜신 차유자	 조영호 교수 외	 박일분-김형근 팀장 외	 이재현 국경없는의사회 / 의학 97	 이상운 교수 외	 중앙일보 대학평가 11위, 연구 혁신성 평가 선전 외	 아침든든아주	 故 황필상 박사 기계 73

2019 총장 신년사

“연결된 교육·연구·대학문화 구축으로 다방면 진출 가능한 멀티플레이어 길러야”

아주가족 여러분

희망찬 기해년(己亥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아주가족 모두 복되고 보람찬 한 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더불어 지난 한 해, 쉽지 않은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최선을 다해 주신 모든 아주 구성원들께 진심을 다해 인사 전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우리는 'Connecting Minds'를 가치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철학을 우리 대학에 어떻게 적용·실현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토론하는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단순한 지식 전수를 넘어 통찰력과 지혜를 기를 수 있는 교육, 학문 간의 벽을 넘어서 산업과 사회·국가에 기여하는 연구를 위해 작지만 의미 있는 발걸음을 뚝했습니다. 그 과정에 많은 아주 가족께서 지혜와 경험을 보태주셨습니다. 수고와 노력을 마다 않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참여해주신 아주 가족 여러분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더욱 다잡아 노력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대학에는 여러 성과가 있었습니다. 법무부가 공개한 전국 25개 로스쿨의 변호사 시험 누적 합격률에서, 아주대 로스쿨이 4위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중앙일보 대학종합평

가에서 11위를 기록했고, 학과별 평가에서는 간호학과가 TOP2, '최상' 등급을 받았습니니다. 로이터 혁신대학 평가에서는 국내 10위를 기록했습니다. 간호대학 건물을 준공했고, 800명 입주 가능한 기숙사와 약 3000평 규모의 종합실험동 신축계획이 확정되어 곧 공사가 시작될 계획입니다. 이 모두가 학생들의 열심, 그리고 우리 교수와 직원들의 정성과 헌신이 만들어낸 쾌거입니다.

우리 대학의 기초 체력을 단단히 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졌습니다. 빅데이터와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거대 연구그룹 조직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신입교원 채용 절차 개선, 연구성과 분석 솔루션 도입, 연구지원 제도 개편 등과 관련해서도 의미 있는 발걸음을 뚝했습니다. 질적 성과를 측정하는 방식의 연구 지원제도 개편, 신입 교원 정착 연구비 확대뿐 아니라 연구 관련 데이터 확보에의 노력을 통해 탄탄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대학의 글로벌화 및 미래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하여 우즈베키스탄으로 이공분야의 교육과 연구 혁신 모델을 전수하고, 연구교류 및 대학원생 유치 등을 통해 연구 인적자원을 확충하고자 하는 교육시스템 수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새해에도 우리의 발걸음은 이어질 것입니다. 어려운 대내외 환경에서도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가진 대학, 독특하고도 공고한 브랜드를 가진 대학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입니니다. '생각의 힘'을 갖춘 학생들을 키워낼 수 있도록 올해 기초교양교육뿐 아니라 전공 교육 개편이 지속될 예정입니다. 학생들이 본인의 전공뿐 아니라 다른 학문과 분야에 관심을 갖고 이를 연결할 수 있도록 대학이 제도와 기반을 마련해주려 합니다. 또한, 우리 학생들이 미래 세상을 꿈꿀 수 있도록 첨단 인터랙티브 강의실, 복합문화공간, 온라인 오프라인 도서관 등을 갖춘 아주의 랜드마크인 50주년 기념관, 글로벌지식정보관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주가족 여러분, 아주는 오는 2023년 개교 50주년을 맞이합니다. 이에 우리는 아주 미래의 10년 청사진을 담은 발전계획을 수립해 시행해 나가려 합니다.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더욱 중요한 때입니다. '변화를 마다 안하는 아주인'으로서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자신감과 희망으로 변화의 시기를 넘어 가고자 합니다.

2019년 새해, 아주가족 여러분 모두의 평안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형주
아주대학교 총장



특별 인터뷰

우리 모두에게는 맨손이 있다

- '당신이 옳다'며 '거리'로 나선 정신과 전문의 정혜신 특별인터뷰

정혜신

前 아주대 의대 정신과 외래 조교수 / 치유자



“ 존재 자체에 집중 않는 문화에서는 모두가 ‘뺏속 깊은 공포’ 지닌 피해자 : ‘안전하다’ 있어야 각자의 에너지 나와 ”

“ 젊은이들 어른보다 훨씬 ‘자기 살아 있어’ : ‘나는 이런 사람’ 규정하지 않게 해야 ”

정혜신은 '거리의 치유자'다. 국가폭력 피해자, 쌍용차 해고 노동자와 그 가족,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과 가족의 곁에 그가 함께 했다. 서로 눈 맞추며 집중해 깊이 이야기 나누고, 함께 폭포처럼 울었다.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마주하던 정신과 전문의 정혜신은, 진료실 밖에서 여러 현장을 경험하며 더욱 강건한 치유자가 되었다. 전문가 자격증이라는 연장을 버리고, 둘러보고 두드려보고 다듬어보며 '맨손'의 위력을 온몸으로 느낀 덕택이다. 치유자로서 한 권의 책 <정혜신의 적정심리학 - 당신이 옳다>에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펼쳐놓은 그를 <아주인사이트>가 만나봤다.

진행 남경호 / 공공정책대학원 초빙교수
글 이슬 / 커뮤니케이션팀

● **곧 새 학기가 시작된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무한 경쟁 사회' 속의 '노동적 입시공부'를 마치고 대학에 들어서는데, 학부모나 이들의 마음이 결코 좋아 보이지 않는다.**

출간 이후 석 달이 채 못 되는 시간 동안 북 토크를 하며 전국을 다녔다. 학생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어머니 아빠를 데리고 온다. 북 토크가 끝나고 나서 부모들이 '내가 아이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알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한다. 아이들은 어른들과 비교하면 '자기가 훨씬 살아 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마음, 생각들이 차단되고 있는 것이다. 자기가 살아있는 아이이지만 본인들의 마음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스스로에 대해 '충조평판(충고 조언 평가 판단)'하고 있어서다. '친구들이 나를 진짜로 볼 거야' '엄마가 실망할 거야' '내가 예민해서 그렇다고 할 거야'라고. 내가 이렇게 힘 이 듣고 지쳤는데 왜 그런지를 묻지 않고 '지금 이러면 안 되는데. 유난 떨면 안 되자'를 생각한다. 자기의 마음에 대해 규정하고 판단한다. 그러다 보면 자기 맘이 어떤 지 스스로도 모르게 되고, 누군가에게 꺼내놓을 기회도 놓치게 된다. '당신은 옳다. 어떤 마음이 들더라도...' 그 전제를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 **'마음의 고통'들에 국가나 사회의 책임이나 책무가 있지 않나? 생존도 치유도 각자도생, 고군분투에 맡기는 인상인데...**

나는 거꾸로 생각한다. 국가 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 피해자 같은 경우, 나를 지켜주고 도와줄 것으로 생각했던 국가와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공격하고 가해하는 상황에 처한 셈이다. 모든 신뢰가 산산조각 나 버린 그런 경우에도 정확한 공감을 받은 경험, 어떤 한 사람과의 관계가 작동하면 그는 살아갈 힘을 얻는다. 이런 개별적 관계가 사람과 세상에 대한 인식 자체에 영향을 주게 된다. 내 주변의 누군가 한 사람, 그리고 끼리끼리 관계를 맺지 못한다면 세상이 바뀐다는 이야기 자체가 너무 공허하고 관념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만약, 세상이 진짜 바뀐다고 해도 그 개인에게는 별 의미가 없다. 사람이 느끼는 사회, 세상은 바로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통해서다. 내 바로 옆에 있는 한 사람이 결정적이다. 한 사람이 한 세상이다.

● **학교, 대학이라는 공간으로 확장시켰으면 하는 프로그램이나 원칙 같은 게 있을까?**

10대 학생들과 학교 안에서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다. 그런데 프로그램을 기획하던 중 의외의 반응에 부딪혔다.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친구들과는 속 마음을 이야기 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 자리에서 꺼내놓은 속마음이, 또래들 사이에서 언젠가 공격의 빌미가 될 수도 있고 놀림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였다. 그러한 장(場)이 만들어져도, 안전하지 않다는 느낌이 기저에 깔려 있기에 속마음을 터 놓을 수 없었던 것이다. '안전'은 정말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욕구다. 그런데 아이들 삶 어디에도 '안전하다'라는 느낌이 없다. 아이들이 한 존재로 살 곳, 숨을 곳이 없기에 근본적으로 불안하고 흔들리는 것이다. 사회가 경쟁적이고 각자도생으로 흘러가는 이런 상황에서, 그 다음 단계를 논하기는 너무도 어렵다.

대학이라는 곳이 학생들 마음 속에 어떻게 자리잡고 있는 지에서 출발해야 할 것 같다. 그 자리매김에 준해 학생들이 행동하고 있어서다. 그 본질을 규명해보고, 그런 다음 대학 구성원들이 생각했던 바와 다르다면 그에 맞게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 같다. 요즘은 젊은이들이 사회적 성취를 하기가 절대적으로 어려운 시대다. 우리 사회가 그간 강조했던 덕목들에 완전히 담을 쌓고, 전혀 별개의 삶을 사는 젊은이들이 늘어간다고들 한다. 나는 그게 오히려 기회라고 본다. 학교, 사회, 부모가 말하는 가치가 젊은이들에게 상처를 주다 못해 거부당하고 있다. 그러면서 젊은이들은 '내가 무얼 중심으로 살아야 하지?' '어떻게 살아야 하지?' 하는 고민을 한다. 이게 삶의 본질적 고민이다.

우리 사회는 존재 자체 보다 존재의 무엇, 즉 스펙 직업 권력과 영향력으로 사람을 바라본다. 그런데 그것들을 다 갖춘 사람조차도 불안해한다. 많은 연예인들이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재벌 회장들도 늘 불안하다. 뺏속 깊은 공포다.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그림자 취급에 상처를 받는다. 이렇게 개인의 '존재' 자체에 집중하지 못하는 문화 속에서는 모두가 불안하고 모두가 피해자다. 모든 인간은 개별적 존재이고 독립적 존재다. 목욕탕에서 사람들을 만나듯이 외형에 휘둘리지 않고, 그 사람 존재의 핵심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 매우 단순하고, 더 필요한 것도 없는 일이다. 사람을 성장시키고 합리적이며 객관적으로 자기 에너지를 쓸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는, 심리적으로 편안하고 안전하게 느끼도록 만들어주는 일이 제일 필요하다.

● **사람이나 상황이 다 다르다. '서로에게 몸을 실어 들고, 봐주는' 깊은 공감을 공유할 사람을 찾기 어렵다면?**

사람과 사람이 진짜로 만나면, 존재의 핵심에 눈 맞춰주는 사람이 생기면, 외로움과 불안이 없어진다. 오랜 우울증을 겪던 사람이 이른 봄, 산에 피어나는 꽃을 보며 경이를 느꼈고



“
30년 복수의 칼 품에 넣고 다닌 분께
“어떻게 죽일 거냐, 꼭 성공하라”
:
들어주고, 공감하면 칼 놓고 우는 게 사람
”

“
“어느 학교 다니세요? 어디 사세요?”
말고 “마음이 어떠세요?” 물어야
:
모든 ‘나’들은 언제나 옳아
”

CONNECTING MINDS



우울증에서 벗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생명, 자연, 예술의 극단에는 절대적 치유력을 갖는 부분들이 있다. 한데 이런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범위에는 한계가 있다. 그 범위를 벗어나는 어떤 영역에서는 혼자로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극단의 치유력은 결국 사람에게서 나온다.

심리적·정신적 지지는 사람이 성장하는 가장 좋은 토양이다. 아주 정확한 공감을 받으면 그때 사람은 가장 객관적이며 합리적으로 변한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를 상담한 적이 있다. 20살때 친구가 본인인 보는 앞에서 대검에 찢려 죽었다. 자연스럽게 시민군이 되어 총을 잡았고 고문을 당하고 투옥됐다. 그 이후 정상적 삶을 살기 어려웠다. 작은 일로도 큰 다툼이 되어 파출소를 찾지 일췌했다. 그 분이 어렵게 이야기를 꺼냈다. “나를 고문했던 수사관을 죽이고 싶다. 30년 넘게 그의 근무지와 주소를 파악해 일주일에 한번씩 뒤를 밟았다. 가방 속에 칼을 넣고” 그 분에게 물었다 - 그를 만나면 어떻게 죽이려고 하셨느냐고. 그 분은 “단번에 안 죽인다. 끝까지 고통을 느끼고 마지막 피 한방울 다 쏟을 때까지, 편안하게 죽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며 울었다. 이런 생각을 입밖에 꺼낸 것은 처음이라고, 본인이 괴물이 됐다고, 30년 동안 이런 생각만을 하고 살았으며 평평 울었다. 20살에 친구가 내 앞에서 그렇게 죽는 모습을 보고, 아무렇지 않게 학교를 직장을 다니며 살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을 거라고. 당신은 괴물이 아니라고 이야기해 주었다. 그리고 응원했다. 이번 주에 가시면 꼭 성공하시라고! 이 분은 30년 넘게 정신과 약을 한 주먹씩 먹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약을 끊고, 일을 다니기 시작했다고 한다. 매우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확하게 공감한 것, 존재의 핵심에 대해 ‘그럴 만한 일이었네’ ‘그럴 수밖에 없었네’라고 온 체중을 실어 이야기해준 것뿐이었다. 죽이고 싶은 그 마음을 알아주면, 그는 진짜 죽이러 가는 게 아니라 더 이상 그런 행위를 할 만한 이유가 없어진다. 그게 바로 공감의 힘이다.
주변에 공감자가 없다고 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본인의 마음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게 더 문제다. ‘내가 이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괴물, 쓰레기로 보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면서,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는 이런 시각이 공기처럼 있다. 스스로 자기를 가두고 있다. 내가 어떤 마음이 들어도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옳다 - 그 전제만 알면 된다.

● ‘공감’의 힘이나 가능성이 많이 강조되는 시대다. 그만큼 공감이 힘들다는 반증일 수 있는데, 전문가가 아닌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깊은 ‘공감자’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책 <당신은 옳다>에 ‘적정심리학’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적정기술’이라는 개념이 내 문제의식에 스며들어왔기에 그런 이름이 나왔다. ‘공감’ 하나만 제대로 몸에 익으면 우리 모두 치유자가 될 수 있다. 이 원리가 우리 몸에 익지 않아서 그렇지 매우 간단하고 쉽다. 망치나 드라이버, 삼 같은 연장이 있는 경우 망치든 사람은 두드리고, 드라이버 든 사람은 돌리고, 삼을 든 사람은 파 보기만 한다. 그게 연장이다. 나처럼 정신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이도

마찬가지다. 분석이나 추론과 같은, 사람을 도우려는 방편으로 연장을 써왔다. 그러면서 얻은 결론은, 연장을 내려놓고 맨손이 되니 오히려 더 여러 기능을 하더라는 거다. 쓰다듬고 안고, 돌려보고 두드리고, 우리는 모두 맨손이 있다. 분석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상대에게 어떤 이유가 있는지 물어본다. 공감은 알아야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안다고 착각한다. 네가 어리석어서, 생각이 없어서, 영똥해서... 총조평판(총고 조연 평가 판단)을 늘어놓는다. 나는 답을 알지만, 저 친구는 몰라 - 라는 구도가 깔려있다. ‘그래 그러렴’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뭐. 한번 해봐도 제대로 된 공감은 아니다. 아는 만큼 공감할 수 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물어야 한다. 몰으면 그만큼 공감할 수 있고, 그 수위에서 다시 듣고 또 공감할 수 있다. 질문의 핵심에는 그 일을 둘러싼 ‘네 마음’이 있어야 한다. 어떠한 상황이나 팩트가 아니라 그 일을 겪던 당시의 ‘네 마음’을 묻고 들어야 한다. 그 느낌, 그 과거에 드러났을 때 그곳에 퍼붓는 것이 바로 공감이다.
공감 하나만 제대로 몸에 익으면 우리 모두가 치유자가 될 수 있다. 전문가를 찾아가는 일도 쉽지 않다. 심리적 저항이 있고, 막상 찾아가도 약만 받아올 뿐 본인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어려운 상황이 많다. 전문가에게 기대지 않고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 그 핵심에 공감이 있다. 단지 너무도 본질적이고도 쉬운 일이라서, 몸에 익지 않아서 껌뻑껌뻑 할 뿐이다. 어느 학교 다니세요? 어디 사세요? 가 아니라 ‘마음이 어떠세요?’라는 질문으로 뜻밖의 경험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시작하면 된다. 그런 관점·인식만 생기면, 실제로 경험해보면 강력하고 빠른 소통법임을 알 수 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인간관계의 가성비가 매우 높아진다.

● 아주 신입생 한 사람이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조연이나 당부의 말을 해준다면...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네가 알고 있던 너의 모습이 사실은 너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만 알면, 자기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열어놓고 대학생활을 하면, 그 안에서 자기를 더 적극적으로 펼쳐갈 수 있다. 최근 유튜브(Youtube) 방송을 시작했다. 북 토크를 하면서 참여한 분들의 실제 이야기를 가지고 심리적 CPR(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심폐소생술) 워크숍을 진행했는데, 다 소화하지 못했다. 그 사연들을 가지고 방송을 한다. 많은 이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 달라.

정혜신은?
1963년 태어나 연세대 의대를 졸업했다. 30여년 동안 정신과 의사로 활동하며 진료실 밖에서 상처받은 이들의 마음을 보듬는 일을 했다.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재단 <진

실의 힘>, 쌍용차 해고 노동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심리치유센터 <와락>,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과 함께 하는 <치유공간 이웃>을 만들어 함께 했다. 재난과도 같은 참혹한 현장에서 상처받은 이들과 함께 하며 그는 ‘실전 무술’ 같은 치유법을 온몸으로 익혔고, 그렇게 능숙한 치유자로서의 모든 것을 최근 펴낸 신간 <당신은 옳다>에 담았다. 우리 누구나 서로에게 치유자가 될 수 있음을, 그 핵심에는 ‘공감’이 놓여있음을 전국을 누비며 설파하고 있다. 치유자 정혜신의 행보에는 늘 그의 반려이자 동반인 심리기획자 이명수가 함께 다. 부부는 서로가 서로에게 공감하고 공감 받으며 축적·농축한 에너지를 국가와 사회, 사람으로부터 상처받아 마음 다친 이들과 나누어왔다. 사람 개개인의 ‘개별성’에 대한 존중이 두 사람의 대원칙이다. 지난해 이명수에게 갑작스레 찾아온 심정지로 인한 투병을 겪으며 부부는 ‘개별성 존중’의 위력을 온 세파로 느꼈다고 마치 간증하듯 고백했다. 인간의 품위나 자의식은 한참 뒷전일 수밖에 없는,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도 ‘원 팀(one team)’으로 함께 했고 타협하지 않았다. 모르는 이에 대해 대소변 처리를 맡기는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대안을 찾았고, 심장 질환 환자라는 일반론에 묶여 자기 통제권을 놓지 않았다. 그렇게 밀도 높은 관심과 주목, 애정을 바탕으로 이명수는 예외적으로 빠르게, 거의 완벽에 가깝게 회복되었고 ‘원 팀’의 여정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
저서로는 부부가 함께 쓴 <출가분>과 <정혜신의 사람공부> <당신으로 충분하다> <사람 vs 사람> <남자 vs 남자> 등이 있다. ●



인터뷰를 마치고 마음속에 따뜻한 봄 한 점씩 커진 듯 했다. 장소: 경인미술관 (사편 이주인사이드(성충, 정준우))



아주의 울타리를 떠나며 I

그래도 나는 꿈꾸는 아주가 좋습니다

조영호 교수 / 경영학과



1972년,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저는 전기 대학시험을 마치고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TV에 어떤 대학을 알리는 CF가 나오더군요. '한국의 소르본느, 아주대학!' 바로 우리 대학교를 선전하는 광고였습니다. 그걸 보며 '뭐 저런 대학이 있나, '대학도 TV광고를 하네' 했었는데 제가 이 대학의 1회 입학생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1회 졸업도요. 박사공부를 마치고 모교에 와서 이제 34년을 봉직하고 2019년 2월 정년을 맞습니다. 너무나 큰 영광입니다. '한국의 소르본느' 그것이 아주가 처음 대중들에게 알려진 이미지고, 꿈이고 비전이었습니다. 아주는 한국 정부와 프랑스 정부가 협정을 맺어 두 정부가 공동으로 설립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유명한 파리의 소르본느 대학을 표방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는 한불 합작 작품이고, 프랑스의 명문 소르본느처럼 훌륭한 학교가 되겠다' 이런

'뽕'도 칠 줄 아는 아주의 '당돌한 기질' : 눈부신 발전 물꼬

거죠. 그 광고문구가 의미한 것처럼 초창기 아주대학교에는 프랑스풍이 많았습니다. 프랑스인 교수와 기술자가 있었고, 교수 사택도 제법 프랑스 냄새가 나는 건물이었지요. 학생들이 매일 볼어 공부를 했습니다. 축제라도 할라치면 프랑스 3색기로 기념품을 만들고, 상송도 틀고 했습니다. 실제로 학생들이 프랑스에 가서 단기교육도 받았습니니다. 저도 2학년말 7명 중 한 명으로 뽑혀서 프랑스 낭트에 갔습니니다. 4주 동안 프랑스어 교육도 받고, 여행도 하고 했지요. 그 때 프랑스어를 많이 배웠습니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선생 아주가 1250년대에 세워졌고, 프랑스 지성의 상징인 소르본느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초창기 TV광고가 문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주대학은 당시 공과대학인데 문과대학만 있는 소르본느와 비유하는 것은 어불성실이라는 거였다 그래요. 그래서 TV광고

가 어느 날 '한국의 MIT'로 바뀌었습니다. 공대니까 MIT가 맞긴 하죠. 그러나 지금 보아도 너무 심했다 싶습니다. 그래도 아주인의 이런 당돌한 기질은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09년에 아주대학은 미래 개교 50주년을 내다보고 '아주비전 2023'이라는 발전계획을 만듭니다. 거기에는 2023년에 아주가 '세계 100위권 대학'이 된다고 쓰여 있습니다. TV광고는 광고 속성상 좀 허풍을 떨 수도 있죠. 그런데 학교의 공식문건에 이렇게 '뽕'을 친단 말입니까? 지금 우리 대학이 세계대학 순위에서 어느 정도 될까요? 서울대가 QS(영국) 순위에서 36위 정도 되고, US News & World Report(미국) 평가에서 123위쯤 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아주는 100위권과는 아주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2023년이 몇 년 남았는데 말입니다. 제가 속한 경영대에서는 국내 최초로 영어로 강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998년도부터니까 정말 국내 대학에서는

국내최초 영어강의에서 '지역전문가' 프로그램까지 : 꿈만큼 안돼도 꿈의 산물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을 때지요. 한국 교수가 한국 학생들을 앞에 두고 영어로 강의하는 건 참 어색한 일이지요. 교수도 사실 영어가 서툴고요. 학생들은 영어교재에다 영어로 강의를 듣고 나면 머리에 쥐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렇게 하자. 우리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해야 하니까' 그래서 했습니다. 이렇게 10년 하면 아주인들은 모두 영어를 유창하게 하고, 글로벌 기업에 다 취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전 과목을 영어로 강의한다' 이런 꿈을 꾸었지요. 네, 그런데 그것은 그냥 '꿈'이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여전히 영어가 서툴고, 영어강의는 3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영동한 상상을 했습니다. 2014년부터는 모든 경영학도는 경영학을 공부하면서 동시에 세계 어느 한 지역을 선택하여 지역전문가가 되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말하자면 '나는 경영학 중에서도 마케팅을 관심 있게 공

부했고, 지역은 중국을 전문적으로 연구했다' 이런 겁니다. 그러려면 영어와 함께 당연히 중국어도 해야겠죠. 이런 교육을 한다고 해서 정부로부터 매년 8억5000만원 정도를 지원받았습니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학생들 중 제2외국어를 하는 학생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 나라 여행 좀 갔다 오고는 지역 전문가라고 큰 소리 치고 있는 거죠. 제가 34년 학교에서 교수로 생활하면서 볼 때 학교가 내세웠던 꿈이 시원스럽게 실현된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 제가 학교를 탓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 연구실 책상 앞에 아인슈타인 초상화를 걸어놓고 있습니다. 학자로서 그 분 같은 업적을 쌓겠다는 각오였죠. 이제 정년에 즈음하여 보면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합니다. 제가 꿈꾸었던 걸 저는 얼마나 이루었을까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꿈꾸는 아주가 좋습니다. 꿈꾸는 아주인이 좋

시원스레 이뤄지는 꿈 본래 별로 없어 : 그래도 더 영동하게!

습니니다. 상상의 나라를 펴고 멋진 미래를 마음대로 상상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신입생들을 면접할 때 보면, 제법 큰 꿈을 이야기합니다. '김우중 회장 같은 기업가가 되겠다' '회계사가 되고, 나중에 기업을 창업하고 돈을 벌어 정치에 참여하겠다' 그런 학생도 있습니다. 패션에 관심이 있는데 경영학을 패션 산업에 접목하여 세계적인 패션기업을 만들겠다' 이런 학생도 있습니다. 그러다간 학년이 올라가면서 쪼그라들죠. '취업이나 해야겠어요' 네, 실망할 것 같습니다. 그게 인생이니까요. 그때 다시 꿈을 꾸세요. 이번에는 좀 더 영동하게 말이에요. 데카르트가 그러셨나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 나는 꿈을 꾸다. 고로 존재한다. 그거 아세요. 초창기 아주대 정문이 현재 학교 정문보다 900m 아래인 '아주대 삼거리' 쪽에 있었다는 것ですよ. 거기서부터 현재 학교부지까지 한 50만평을 확보하려 했었

나 봐요. 아주대학교라는 이름은 왜 그렇게 지어졌는지 아세요? 亞洲는 Asia라는 뜻이에요. 아시아 제일이 되라는 메시지죠. 저는 비록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꿈꾸는 아주가 좋습니다. 제가 학교를 떠나 후 아주는 무슨 꿈을 꿀까요? 여러분은요? ㉠

교수님, 감사합니다. - 정년퇴임 교원

- 강충권 불어불문학과 재직 1990. 3.~2019. 2.
김호섭 행정학과 재직 1988. 8.~2019. 2.
이재식 e비즈니스학과 재직 1990. 3.~2019. 2.
조광순 영어영문학과 재직 1989. 3.~2019. 2.
조영호 경영학과 재직 1985. 3.~2019. 2.

㉠ 2018학년도 2학기를 끝으로 정년퇴임하는 교수 5분을 대표해 글을 보내주신 조영호 교수님, 고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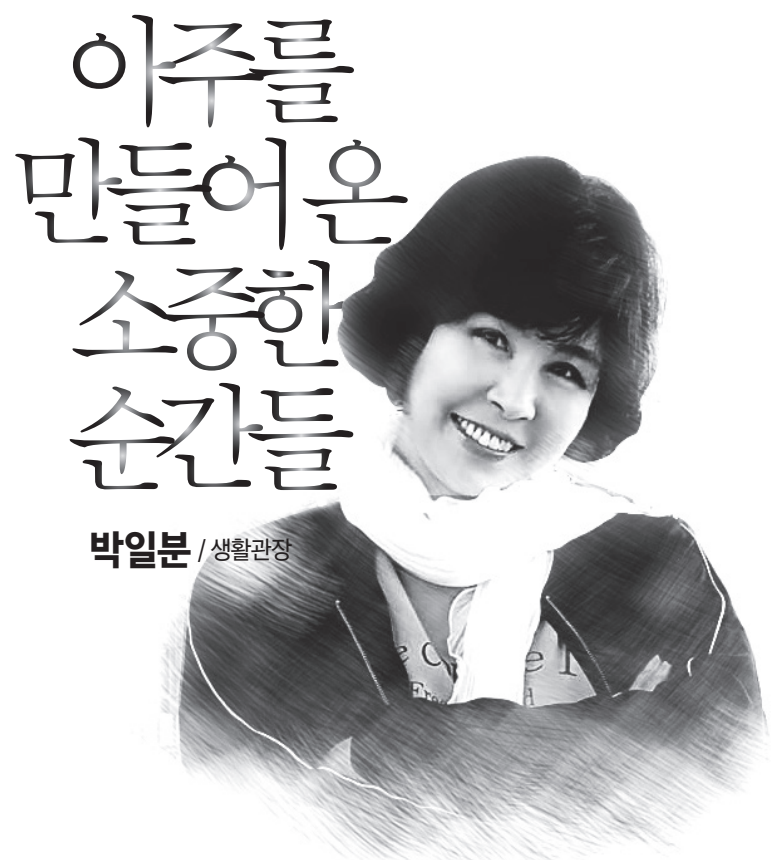
아주의 울타리를 떠나며 II

많은 기억들이 떠오른다. 너무 많아서 순위를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교직원으로서 여러 경험과 모험도 해봤고 '하고 싶은 일'도 많이 해봤다. 그 중에서도 발전기금팀에서의 일들이 기억난다. 2003년도만 해도 대학에서는 생소한 부서였던 발전기금팀에서 ▲학부모 초청행사 ▲입학30주년 행사 ▲후원의 날 등 타 대학을 찾아다니며 벤치마킹 해 이뤄냈던 사업들이 성과를 낼 때 어린아이처럼 기쁘고 행복했다. 2006년 5월부터는 학생처에서 일했다. 이 시기의 총학생회는 운동권과 비운동권이 혼재되어 교내에서는 학생복지사업, 교외에서는 민주 통일과 한미 FTA 등의 이슈로 복잡하게 얽혀 풀어나야 할 사안들이 많았다. 총학생회와 재학생들의 관심을 여러 가지로 확장시킬 필요가 있었기에 학생복지 사업으로 ▲아주문화 공연 ▲교수와의 문화산책

들과 복작거리며 지낸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소중하게 가꿔야 할 가치들이 있다. 바로 마음이 맞고 뜻이 같아 인연이 닿았던 동료들, 함께 일했던 후배들과의 의리다.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슬퍼하며 울고, 또 후배와 동료들을 위해 편이 되어주고 필요할 때는 같이 싸워주는 것이다. 조직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직원들이 화합하여 함께할 때 비로소 조직과 개인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해진다. 이 마음이 학교 생활에서 얼마나 큰 의미를 담고 있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 때다.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펼쳐보고 싶다면 말이다. 나를 포함한 우리 세대의 역량이 부족해서였는지 몰라도 과거 총무처장과 부처장, 도서관 관장까지 직원들이 일했던 자리들이 지금은 생활관장과 창업지원단 부단장까지로

아주대 재직 31년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고맙고 감사하다'다. 학교가 나에게 건네준 배려와 혜택에 비해 내가 학교에 보답한 비가 보잘것없어 미안하고 송구할 따름이다. 아주대 발전과정을 되돌아보면 나도 그 중심에 서 있었다. 1990년대 학교가 대학 행정 개혁을 통해 전국 대학 중 가장 먼저 행정 전산화를 실시하고, 대학종합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할 때 함께 하였다. 학생선발본부를 발족하여 우수학생 선발을 위해 전국 고등학교를 방문하고 선생님들을 찾아가 만날 때도 함께 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아주대 신입생들의 평균 입학 성적이 수능 평균 상위 3.8%(1999년 수능 성적 발표)를 기록했다. 정말 지치는 줄 모르고 신나게 일하며, 성과의 즐거움을 만끽했던 젊은 시절 추억이다. 한 신입생은 '아주대 하면 생각나는 것은?'이

개로 각 분야에 내공을 갖춘 대단한 전문가들이 정말 많다. 조금 더 이른 시기에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만났으면 나의 삶의 지평이 넓어졌고 정신적인 풍요를 더 느낄 수 있었을 것이다. 이제 아주대학교는 제법 덩치가 커졌고 연륜을 갖추었다. 모든 일이 처음에는 어렵지만 그 과정을 지나면 가속도가 있어 스스로 몸통을 불려간다. 이제 우리 대학은 자생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대학이 위기라고 하여도 우리 대학은 지금껏 그랬듯이 위기에 현명하게 대처하며 발전해 나갈 것으로 믿는다. ❶



아주를 만들어온 소중한 순간들

박일본 / 생활관장

솔한 新사업
일구어 온
40년 여정
:
이루지 못한 꿈
후배들 '미래'의
맡거름이길

▲총장뺑이, 장학사업으로는 ▲자기개발 장학 ▲확장 장학이 탄생했다. 축구부 운영과 관련해 영광스러웠던 일은 경기도와 수원시의 지원으로 2013년 인조 잔디구장 2면을 조성한 일이다. 그 이듬해에는 축구부 후원회를 새로이 결성, 지금까지 우리 선수들과 지도자들에게 큰 힘이 되어 주고 있다. 햇수로 13년을 학생지원팀에서 근무하며 가장 행복하고 감사했던 일은 학생들과 가까이 머물고 호흡하며 그들의 생각과 정서를 공유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팀장으로 일하며 이 모든 일들을 이뤄내는 데 큰 힘이 되어준 나의 조직 아주대학교에 감사한다. 그리고 많이 힘들었을 텐데도 묵묵한 지지자가 되어준 나의 동지와 후배들, 진심으로 사랑한다. 우리는 대략 30년, 혹은 그 이상을 동료

함정되어 있다. 후배 직원들이 앞으로 역량을 마음껏 펼쳐주리라 믿는다. 이루지 못한 나의 꿈이 뛰어난 실력과 능력을 갖춘 후배들의 '미래'가 될 것이다. 아주대는 그야말로 '나의 젊음'이다. 이곳에서 마음의 젊음을 간직할 수 있었기에 지난 40여년이 보석같이 빛나고 소중한 것이다. 그래서 이곳을 벗어났을 때 부모님을 여의는 것만큼 아파하지 않을 거라는 두려움도 있다. 하지만 이제는 또 다른 인연을 맺어가며 아주대와의 멋지고 아름답게 헤어지리라! Adios, 아주! ❷



김형근 / 정보통신대학 교학팀장

즐거움은
자칫줄
모른다

대학 최초 행정전산화,
대학평가 최고 점수 획득
'즐거움이 이뤄내'
:
아주만의 '자생력'
급변하는 사회에서도
발전 이끌 것

라는 질문에 '홍보하는 입학처 팀장 선생님'이란 답변을 하기도 해 내 기억 속에 깊게 남아 있다. 재직 중 또 하나의 잊지 못할 추억은 경영대 학생들과 배낭메고 일본여행을 다녀와 <또 하나의 충격>이라는 제목으로 여행기를 발간한 것이다. 해외 여행 준비 과정에서부터 여행 중 보고 느낀 점까지를 책에 담았다. 이 책은 장안에 화제가 되어 KBS 뉴스를 탔다. 8명의 학생이 2인 1조로 오사카 고속도로에서 헤어져, 차량을 얻어 타고(히치하이크)일본의 심장부인 동경역에서 다시 만났다. 이 여행의 기억을 가장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한다. 잊지 못한다. 지난 시간을 학교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냈다. 퇴직 후 해야 할 일을 찾기 위해서 다른 분야의 사람들과 만나고 생활하다 보니 느낀 것이 너무 많다. 직업과 별

선생님, 감사합니다.
- 정년퇴임 직원

강경희 입학팀 재직.1980. 3.~2019. 2.	김형근 정보통신대학교학팀 재직.1988. 3.~2019. 2.
나명순 산학지원팀 재직.1981. 4.~2019. 2.	박일본 생활관 / 학생지원팀 재직.1978. 6.~2019. 2.
유시대 소비조합 재직.1982. 3.~2019. 2.	

❶ 2018학년도 2학기를 끝으로 정년퇴임하는 직원 5분을 대표해 글을 보내주시는 김형근 팀장·박일본 관장님, 고맙습니다.



“열심히 ‘핫플레이스’ 다니고 있죠.”

- 생명·희망 살리는 국경없는 의사회 구호활동가



이재현 의학과 97학번 / 정형외과 전문의

저는 핫 플레이스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핫하다는 경리단길과 이태원, 홍대와 연남동, 종로 익선동, 잠실 롯데타워를 찾아 볼거리·맛집을 즐기고 쇼핑도 다닙니다. 그리고, 지난 몇 년간은 또 다른 핫 플레이스들을 다녀왔습니다. 시리아 국경에 근접한 요르단 람사에서 시리아 전쟁에서의 손상으로 팔다리가 터져나간 환자들을 만나고, 치안이 불안정한 아이티 타바에서 남녀노소 불구하고 매일매일 총상과 칼에 찔려 오는 환자들을 수술하고, 부룬디 부주부라에서는 숨죽이며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올해는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비무장 민간시위대를 향한 이스라엘 군의 총격에, 매주 쏟아지는 대량 사상자들을 접하고 왔습니다.

뜨거운 정세 속 여행이 자제되는 지역인, 때로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며 상속인을 지정하는 법률문서를 출발 전 제출해야 하는, 무력분쟁 지역의 의료구호 프로젝트들이었습니다. 무력분쟁 지역은 자연재해, 전염병 창궐, 의료 사각지대와 더불어 국경없는의사회의 주요 활동 지역 중 하나입니다. 국경없는의사회(MSF, Médecins Sans Frontières)는 1971년에 프랑스의 의사와 언론인으로부터 시작한 인도주의 국제의료구호 NGO입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이름이 ‘의사회’라 의사 또는 의료인들만의 단체라고 언뜻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의료인과 비의료인의 구성비가 반반 정도입니다. 언론, 법률, 행정, 회계, 건축, 설비, 전기, 전자, 물류 등의 모든 인력이 함께 하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개인 후원자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단체로, 정부나 기업의 발언에 휘둘리지 않고 필요한 수요를 자체 발굴하여 지원하는 독립적인 단체입니다. 많은 토론과 토의가 인종, 국적, 종교를 아우르며 이루어지고 있지요. 국경없는의사회는 정치적, 군사적, 종교적 성향에 관계없이 공정하게 그리고 중립적으로 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제기구 그리고/또는 인도주의 활동에 관심 있는 후배님(또는 선배님)이라면 의대뿐 아니라 모든 과에서 국경없는의사회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내가 만들고, 경험하는
대학 문화에서
성숙 시작돼

‘세계는 우리의 응급실입니다’라는 국경없는의사회 한국의 캐치프레이즈만큼이나 세계 곳곳에는 절대적인 의료결핍 상황에 빠진 사람들이 수없이 많음을 구호현장에서 접합니다. 사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주요 시설이 마비된 사회에서, 최소한의 의료마저 없으면 생명도 희망도 사그라집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너무나 먼 열악한 다른 세상 이야기인 듯 하지만, 우리나라 근현대사에도 6.25전쟁으로 인한 끔찍한 폐허를 겪던 시기에 도움을 손길이 있었습니다. 전쟁 중 다섯 살이었던 저의 어머니는 폭파물의 뜨거운 파편이 등으로 튀는 손상을 당했습니다. 다행히 깊게 박히지 않고 피하 층에서 멈췄지만, 어린 나이에 느꼈던 통증은 상상했다고 합니다. 의료시설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던 시절이었는데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의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제 활동을 보며 지금도 당시를 회상하고는 합니다. 국경없는의사회의 활동이 단순히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의료활동 또는 구호활동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구조적 소외 속에 놓인 사회를 보게 되고, 세계라고 하는 커다란 틀과 흐름 속에서의 사회정의의 고민하며 크고 작은 질문을 품게 됩니다. ‘국제’는 ‘국내’의 반대말이 아닌 상호교류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국제와 국내에서 각 분야에서 사회정의에 대해 고민하고 관심을 갖는 것은 건강한 사회인, 그리고 세계시민으로서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인으로서 성숙해가는 본격적인 시작은, 대학시절 자신이 만들고 경험하는 문화에서 비롯되는 것 같습니다. 주어진 목표를 향해 같은 공간에서 뛰었던 고교시절을 지나, 자발적 목표설정이 가능한 열린 공간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능동적으로 만나며 마음껏 배우고 교류하는 공간의 시작은 대학이니까요. 돌아켜보면 이 시간은 저에게도 본격적으로 사회로 진출하기 전 여러 시도와 시행착오 속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가고, 자신의 철학과 품성 그리고 생활 양식을 가다듬어 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주대의
사회 인사와 연결한
교양 수업과 강좌에 관심 높이길

교과·사회이슈 공부가
실천하는 삶의 바탕

얼마 전, <환자, 의사 그리고 사회>라는 의학과 교양수업에 초청받아 국제보건의 이해와 인도주의라는 주제로 후배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의 학창시절에는 2학년 때 한 학기 교양수업으로 있었던 과목이 점차 활성화되어 매 학년의 수업으로 마련되어 더군요. 후배들이 다양한 사회 인사들과 만남의 시간을 갖게 되는 모습에, 더욱 기회 폭이 넓어지는 것 같아 좋았습니다. 이런 교양강좌 중에서 마음을 울리는 강의가 있다면 그 분야에 좀 더 관심을 가지며 찾아가고, 주변에 같은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지 찾아본다면 학창시절이 더욱 풍부해지리라 생각합니다. 저에게 ‘아주대학교’ 하면 훌륭한 교수님들, 짜임새 있는 교과 시스템과 기회, 그리고 그 안에서 열심히 공부했던 시간도 떠오르지만, 그와 더불어 대학시절을 함께 한 많은 동기, 선배와의 소중한 시간들이 더욱 가깝게 떠오릅니다. 그 중 제가 가장 영향을 받은 인연은 임승관 선배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임 선배와 함께 인권영화제를 보러 다니고, 사회과학경제철학 교양도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때로는 광주 망월동 묘역을 방문하기도 하고 양심수석방을 위한 문화제 같은 다양한 사회 이슈 행사에도 찾아가 보던 그 시절은, 교과목을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 못지 않게, 알게 모르게 저의 바탕이 되어갔습니다(임승관 선배는 2018년 11월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의 병원장으로 취임하셔서 공공의료의 바른 길을 모색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포부로 정성을 쏟고 계십니다). 시야가 크게 넓어지기 시작하는 시기인 대학시절에 수업은 기본이지만, 수업을 넘어서 좋은 스승과 좋은 동기 선배와 소중한 인연을 엮어가시길 기대합니다. 가까운 만남일 수도 있고, 강연을 통한 또는 책이나 글을 통한 만남일 수도 있겠습니다. 먼저 다가가고, 그 인연을 진중히 만들어가는 시간 속에서 자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찾게 될 것 입니다. ❶



RESEARCH NEWS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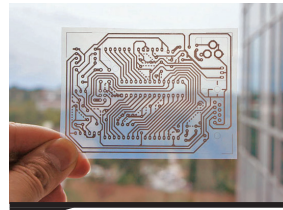
박막형 기능성 산화물 이종접합을 통한 2차원 전자층 물질 개발

이상운 교수

물리학과·대학원 에너지시스템학과



이상운 교수팀이 박막형 기능성 산화물 이종접합을 통한 2차원 전자층 물질을 개발했다. 이상운 교수(물리학과·대학원 에너지시스템학과)와 한양대 에리카캠퍼스의 박태주 교수팀은 공동 연구를 통해 2차원 전자층 물질을 개발해냈다. 논문 제목은 "New-Type Field-Effect Device Using Quasi Two-dimensional Electron Gas in Mass-Productible Atomic-Layer-Deposited Al2O3/TiO2 Ultrathin (< 10 nm) Film Heterostructure"다. 관련 성과는 지난 10월23일 출간된 <ACS Nano>에 게재됐다. 아주대에서 정해준 학생이 공동 제1저자, 김수빈·김성민 학생이 공동 저자로 참여했고 이상운 교수가 공동 교신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교수 연구팀은 절연체인 두 산화물 이종접합의 계면에 많은 수의 자유 전자를 속박시키는 흥미로운 물질을 개발했고, 이를 고가의 단결정-에피층을 사용하지 않고 조성이 간단한 이원 형태의 박막을 통해 구현하여 실제 고성능 투명 트랜지스터 소자로 활용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 이번 연구에서 개발한 물질은 원자레벨에서 물질을 조절할 수 있는 원자층 증착 공정(atomic layer deposition)을 사용하여 구현했다. 연구팀은 10nm(나노미터) 이하의 매우 얇은 박막형 산화물 이종접합 물질로 구현해내, 소자가 투명하고 휘어지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 교수는 "양산에 적용 가능한 반도체 기술을 이용하여 일구어 낸 결과이기에 파급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내 반도체 분야의 신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센서 산업 등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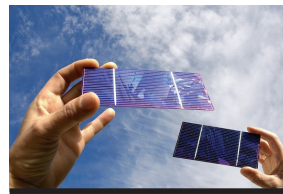
차세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요소기술 개발

박희준 교수

전자공학과·대학원 에너지시스템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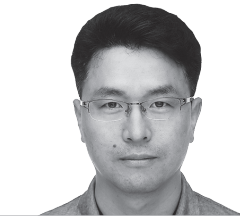
박희준 교수 연구팀이 차세대 태양전지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했다. 박희준 교수(전자공학과·대학원 에너지시스템학과) 연구팀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에 쓰이는 정공 수송층의 성능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해 이를 국제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Nature Communications)> 10월31일자에 게재했다. 논문의 제목은 "태양빛 하에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유기 정공 수송층의 전이쌍극자 제어(Management of transition dipoles in organic hole-transporting materials under solar irradiation for perovskite solar cells)"다. 박희준 교수가 교신저자로 참여한 이 논문에는 아주대 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옥송아 학생이 제1저자로, 김종현 교수(응용화학생명공학과·대학원 분자과학기술학과)와 이대운 학생이 공동저자로 함께 했다. 건국대, 공주대, 성균관대 연구팀도 함께 참여했다.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페로브스카이트(ABX3)를 광활성층으로 사용하는 태양전지를 말한다.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에너지 전환효율이 매우 높는데 제작비용이 다른 태양전지에 비해 훨씬 저렴하여 차세대 태양전지로 주목 받고 있다. 연구팀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 정공 수송층에 주목했다. 정공 수송층은 태양전지의 광활성층에서 생성된 정공 양전하를 가진 가상 입자로, p형 반도체에서 전류를 운반한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정공 수송층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 에너지 준위(energy level) 제어나 정공 수송 능력 향상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하지만 박희준 교수 연구팀은 유기반도체 기반 정공 수송층의 들뜬상태에서의 특성에 주목했다. 태양빛 아래에서 태양전지의 정공 수송층에 지속적으로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정공 수송층을 구성하는 유기반도체 물질이 높은 에너지 준위(energy level)를 가지는 들뜬상태로 존재할 확률이 증가하며, 이러한 들뜬상태에서의 특성이 태양전지 동작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새롭게 규명한 것이다.



빛 특성 바꿀 수 있는 광학 소재 발견

권오필 교수

응용화학생명공학과·대학원 분자과학기술학과



권오필 교수 연구팀이 새로운 결정 설계 기술을 도입해 빛의 주파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고효율의 비선형 광학 소재를 개발했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주파수로 대표되는 빛의 특성을 바꿀 수 있어 레이저와 초고속 광통신 등의 광학 소자로 널리 활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권오필 아주대 교수(응용화학생명공학과·대학원 분자과학기술학과)와 이상민 한국과학기술원 교수(물리학과) 연구팀은 화학 구조의 변화를 통해 광학 소재를 설계하는 방식이 아닌, 여러 개의 구성요소를 섞는 방식으로 새로운 비선형광학 소재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성과는 소재 분야 저명 학술지인 <어드밴스드 펄서널 매터리얼즈(Advanced Functional Materials)> 11월28일자 표지 논문으로 선정됐다. 논문 제목은 "유사-공결정화를 통해 설계된 비선형광학 및 테라헤르츠용 3성분 유기 단결정(Organic Three-Component Single Crystals with Pseudo-Isomorphic Cocrystallization for Nonlinear Optics and THz Photonics)"이다. 광학 연구에 쓰이는 유기 비선형광학 결정은 물질 내에서 주파수를 비롯한 빛의 특성을 조절 할 수 있는 소재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낮은 주파수의 빛을 높은 주파수로 바꿀 수 있고, 반대로 높은 주파수의 빛을 낮은 주파수로도 바꿀 수 있다. 빛의 핵심 특성인 주파수를 바꿀 수 있다면, 빛의 특성 조절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빛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빛의 특성을 조절해 빛을 이용하는 다양한 분석 장비에서 그동안 측정하지 못하던 소재를 분석할 수 있게 되거나, 이전에 비해 더 넓은 부분을 볼 수도 있게 된다. 아주대·카이스트 연구팀이 개발해 낸 것이 바로 빛의 주파수를 바꿀 수 있는 고효율의 비선형광학 소재다. 연구팀은 새로운 결정 설계기술을 도입해 이 같은 소재를 개발해냈다. 기존에 개발되어 주로 사용되어 오던 비선형광학 소재는 이온성 비선형광학 소재다. 이온성 비선형광학 소재는 양이온 하나와 음이온 하나로 이루어진 2성분계로, 소재의 특성을 변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었다. 주로 새로운 화합구조를 도입해 소재 특성을 제어해야 했기 때문. 이에 아주대·카이스트 연구팀은 음이온 두 개를 동시에 사용하는 3성분계를 도입해 2성분계와는 현저히 다른 진동 특성에 기인한 광변환 특성의 개선을 이뤄냈다.



NEWS >>>



중앙일보 대학평가 11위, 연구 혁신성 평가에서 선전

아주대가 '2018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지난해 보다 1단계 오른 11위를 기록했다. 중앙일보는 인문·사회·공학·자연과학·의학·예체능 계열 중 4개 이상을 갖춘 4년제 대학 57곳을 대상으로 평가했다. 아주대는 대학평가에서 총점 172점으로 11위에 올랐다. 지난해 12위에서 한 단계 오른 순위다. 평가 항목 가운데 ▲교육 노력 및 성과에서 10위를 기록했고 ▲평판도에서 14위 ▲교수 연구에서 15위 ▲교육 여건에서 16위를 기록했다. 세부 항목 중에서는 ▲외국인 학생의 다양성(4위) ▲교수 확보율(15위) ▲현장실습 참여학생 비율(4위) ▲창업교육 참여학생 비율(1위) ▲입학추천하고 싶은 대학(10위)에서 특히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중앙일보가 올해 처음 실시한 이노버시티 혁신대학 평가에서 아주대는 10위에 올랐다. 이노버시티(Innoversity) 평가는 혁신(Innovation)과 대학(University)에서 따온 이름으로 국내 대학들의 과학기술 연구 혁신성에 중점을 뒀다. 아주대는 총 561점으로 혁신대학 순위 10위에 올랐다. '이노버시티 대학 평가'는 중앙일보 대학 평가 대상 대학 중 최근 4년(2013-2016년)동안 발간한 SCI급 논문 수가 400편 이상, 총 발명 수가 200건 이상인 대학 48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중앙일보는 학술정보 분석 기관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와 함께 논문과 특허의 탁월성을 살펴볼 수 있는 10개 지표를 선정해 심사했다.



'내가 만드는 나만의 대학' 파란학기 이어져

2018학년도 2학기 '파란학기제-아주 도전학기 프로그램'이 마무리됐다. 파란학기는 지난 2016년 아주대가 처음 시작한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도전과제를 설계하고 실천해 학점을 받는 프로그램이다. 2학기 파란학기제 성과발표회는 지난 12월7일 종합관 로비에서 박형주 총장과 파란학기제 지도교수, 참가 학생들이 자리한 가운데 열렸다. 시상식에 앞서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진행한 파란학기 도전과제에 대한 전시가 마련됐다. 파란학기제는 지난 2016년 1학기부터 지금까지 6학기째 진행중이다. 이번 학기에는 총 35개팀, 117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상권을 홍보하는 웹사이트를 만들거나, 설치 미술 작품을 만들어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수업 통해 배울 수 없는 다양한 주제들로 파란학기를 채웠다. 올해 최고상인 <훌륭한 박사공상>에는 제1회 아주대학교 광고제를 개최한 인터루드팀이 선정됐다. 인터루드는 상금으로 100만원을 받았다. 수상팀들에게는 총 60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됐다. 파란학기제란, 아주대의 상징색인 '파란'색에서 따온 이름으로 알(자신의 틀)을 깨는 '파란(破卵)'과 이런 시도를 통해 사회에 신선한 '파란(波瀾)'을 일으키자는 뜻이 담겨 있다. 파란학기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스스로 도전과제를 설계할 수 있고, 교수나 학교가 제안하는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인문, 문화·예술, 봉사, 국제화, 산학협력 등 모든 분야에서 제한 없이 도전과제를 설계하면 된다.



상호존중 캠퍼스 문화 조성, 인권센터 개소

아주대가 상호 존중의 캠퍼스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그동안 분리해 운영하던 인권 상담 기능을 인권센터로 통합·강화한다. 학교는 11월30일 성호관 강당에서 박형주 총장과 교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권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진국 인권센터 센터장(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센터 소개로 시작된 행사는 ▲박형주 총장의 환영사 ▲장성근 변호사(전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축사로 이어졌다. 박형주 총장은 "이진국 센터장을 비롯한 여러 교수와 직원들의 수고와 헌신 덕에 인권센터가 출범할 수 있었다"며 "일선에서 아주 구성원들과 만나는 연구원과 상담사 선생님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장성근 변호사는 "폐허가 구제 정도에 머물렀던 인권에 대한 접근이 정책 수립까지로 달라지고 있는 만큼 인권센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다양한 가치관이 충돌하는 최전선이 될 인권센터의 출범을 환영하며, 성원을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대 인권센터장을 역임한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서울대 법대 교수)의 개소 기념 특강이 <대학 인권센터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됐다. 개소식 본 행사 이후에는 신학생회관 4층에 위치한 인권센터의 현판식이 마련됐다. 인권센터는 인권 보호와 권의 향상을 위한 여러 상담과 사안 처리를 담당하는 센터로 신설됐다. 총장 직속 기구로 운영되며 인권 상담 및 교육·연구뿐 아니라 성 평등 상담 및 지원, 장애학생 지원 등을 담당한다.

J 중앙일보 TOP20 종합 순위

순위	대학	점수
1	서울대 (1)	242
2	성균관대(2)	222
3	한양대 (3)	214
4	고려대 (4)	206
6	연세대(5)	188
7	경희대 (10)	182
8	서강대 (6)	181
9	이화여대 (10)	181
10	한양대 ERICA (9)	180
11	중앙대 (7)	175
11	아주대 (12)	172
	인하대 (8)	172
13	한국외국어대 (13)	169
14	서울시립대 (13)	167
15	건국대 (15)	166
16	부산대 (16)	164
17	동국대 (17)	162
18	국민대 (19)	160
19	서울과학기술대 (21)	157
20	숙명여대 (26)	155

* () 안 숫자는 지난해 순위 * 점수는 300점 만점



NEWS >>>

법학전문대학원, 동문기업에 법률 서비스 지원

법학전문대학원이 총동문회 소속 동문기업들에 대해 법률 서비스를 지원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은 기업법무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법무지원단>을 출범하고, 총동문회와 동문기업의 법무 지원 서비스를 위한 MOU를 체결해 지난 11월26일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중소기업 법무지원단>은 경력 3년차 이상의 아주대 로스쿨 출신 기업법무 변호사들로 구성됐다. <중소기업 지원단>은 로스쿨 인가 당시 '중소기업 법무'를 중점으로 추진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의 특성화 사업을 현실화하기 위해 창설된 조직이다. 지원단은 고액의 법률 자문비용 때문에 충분한 법률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없던 경기도 인근 중소기업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법률자문을 합리적 비용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지원단>은 우선 총동문회와 MOU를 체결, 동문 CEO들이 포진한 기업들에 초기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동문 CEO 기업들에게 제공되는 법무 지원은 1차적 상담으로 ▲스타트업 기업 법무지원 ▲분쟁에 대한 법률적 대응 필요성 검토 분석 ▲승소 가능성 등 리스크 분석 ▲비용 및 소요기간 등 관리 분석을 포함한다. 비용은 심비로 제공할 예정이다. 1차 상담 이후 보다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법률지원단 소속 로펌뿐만 아니라 아주대 로스쿨과 업무지원 협약이 체결된 기업법무 전문 10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흥정과 두우가 지원에 나선다.

총동문회와 아주대에 소속된 스타트업 벤처기업들은 법률 지원이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 법무지원단 소속 로펌에 개별적으로 접촉하거나, 동문회 사무실을 통해 적합한 로펌을 추천 받을 수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은 장기적으로 중소기업법률지원단 활동을 경기도 기업지원 시스템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 경기도 중소기업들의 법무지원을 위한 중요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중소기업법률지원단 소속 동문 변호사 현황

- ▲한승일 1기, 법무법인 규장각, 031-605-9991
- ▲이지원 2기, 법무법인 로고스, 02-6203-1114
- ▲조철현 3기, 법무법인 고운, 031-302-5522
- ▲신은혜 3기, 법률사무소 개인, 031-8081-1094
- ▲김민재 4기, 법무법인 대송, 02-534-2866
- ▲김민찬 4기, 법률사무소 태운, 031-217-2373
- ▲신석준 6기, 법무법인 누리, 031-387-4925
- ▲김성관 7기, 법률사무소 지한, 031-546-1511
- ▲손도형 7기, 법무법인 지안, 02-2007-6800
- ▲김택민 7기, 법률사무소 이상용, 02-523-3100

AWARD & SELECTION

조인선 교수, 2018 올해의 기초 연구자 선정

조인선 교수(신소재공학과·대학원 에너지시스템학과)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2018 올해의 기초 연구자'로 선정됐다. 과기정통부는 부문별로 올해의 기초 연구자 10명을 선정했고 조인선 교수는 신진연구 분야 수상자로 뽑혔다. <기초연구진흥 유공자 포상 시상식>은 지난 12월5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됐다. 신진연구 분야와 ▲중견연구 ▲리더 연구 ▲선도연구센터 ▲기초연구실 ▲기반구축 부문에서 10명의 학자가 포상을 받았다. 조인선 교수는 태양광과 물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태양광-수소 기술에서 우수한 연구 성과를 도출하고 나노 소재 및 태양광-수소 분야 핵심기술 개발에 기여했다. 또 세계 최고 수준의 전극 소재 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원천기술 확보 및 국제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이번 포상자로 선정됐다. <기초연구진흥 유공 포상 시상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초연구사업에서 우수 성과를 창출한 연구자 및 기여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한 포상으로 매년 실시되고 있다.



AWARD & SELECTION

한만엽 교수, 제52대 대한토목학회 회장 선출

한만엽 교수(건설시스템공학과)가 제52대 대한토목학회장에 선출됐다. 대한토목학회는 지난 12월7일 서울 논현동 컨설션관에서 개최한 지명위원회에서 한만엽 교수가 회장으로 당선됐다고 밝혔다. 임기는 2020년 1월1일부터 1년이며, 2019년에는 차기 회장으로 활동하게 된다. 한만엽 교수는 서울대 토목공학과와 동대학원을 거쳐 미국 텍사스 A&M대학교에서 콘크리트 구조 분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대한토목학회 이사, 토목의 날 준비위원장, 콘크리트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고 현재 공공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한 교수는 2014년부터 한국공학한림원 회원으로 활동 중이며, 2015~2016년에는 아시아콘크리트연맹의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한만엽 교수는 "건설 산업이 침체에 빠진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건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시키는 노력을 하고자 한다"며 "해의 건설 중흥 방안, 통일 대비 건설 전략, 하이퍼루프, 지하 도시, 스마트 시티 등의 미래형 건설 신산업을 대한토목학회가 주도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대한토목학회는 우리나라 건설 분야를 대표하는 학회로, 1951년 창립 이후 회원 2만6000여명의 대형 학회로 성장했다. 학회는 9개의 지회, 71개의 위원회로 구성된 조직을 통해 다양한 학술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AWARD & SELECTION

파란사다리 추진 성과 '우수' 선정

아주대가 지난해 <파란사다리> 사업을 탁월하게 운영한 공을 인정받아 '2018년 파란사다리 추진 실적 우수 대학'으로 선정됐다. 파란사다리는 아주대 "AFTER YOU 프로그램"을 모태로 탄생한 취약 계층 대학생들을 위한 해외 연수 프로그램이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파란사다리 사업>을 주관한 10개 대학 가운데 2개 대학을 선정해 시상했다. 사업 추진 실적이 우수한 대학의 사업 담당자가 포상 대상이다. 우수 대학 선정은 ▲사업 계획의 충실성 ▲학생 선발 과정의 적절성 및 참여 유도 ▲사전 교육 프로그램의 우수성 ▲현지 연수 프로그램의 충실성과 적절성 ▲학생 만족도 등을 지표로 해 진행됐다. 한국장학재단은 주관 대학뿐 아니라 참가한 학생 중에서도 10명의 활동 우수자를 선정해 포상했다. 아주대 나하나 학생(상해교통대학 파견)이 대상을 받았고, 오충열 학생(위성탄대학 파견)과 유은주 학생(경민대학교, 위성탄대학 파견)은 장려상을 받았다. 유은주 학생은 인근 지역의 타 대학 재학생으로, 아주대 주관 프로그램에 참여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파란사다리 사업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기 개발과 진로 개척을 위해 노력하는 대학생에게 해외 연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8년 대학생 800명을 선발해 연수 경비를 지원했다. 선발된 학생들은 지난 여름 해외 대학에서의 4주 간 어학연수 및 문화체험에 참가했다.

AWARD & SELECTION

정승호 교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정승호 교수(환경안전공학과)가 환경 규제 및 안전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정승호 교수는 지난 12월13일 부산에서 열린 <산업전문 인력 역량 강화사업 성과교류회>에서 유공자 포상을 받고, 우수 사례자로 선정돼 발표에 나섰다. 이번 포상은 '산업전문 인력 양성사업'에 참여해 산업인력 미스 매치 해소와 일자리 창출 강화 등에 기여한 공이 큰 기관 및 종사자에게 주어졌다. 평가에는 ▲산업 전문 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활동 실적 ▲산업계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기여도 ▲산업 전문 인력 역량강화 성과(취업률 제고) 등이 고려됐다. 정승호 교수는 지난 2014년부터 대학원 환경안전공학과에서 운영 중인 환경 규제 및 안전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의 과제 책임자를 맡고 있다. 정 교수는 지난 3년간 총 45명의 전일제 대학원생(100% 장학금 지급)을 지도해왔다. 특히 졸업생들의 환경 및 안전 분야 진출이 활발해 취업률이 82%를 기록했고, 그 중 졸업자 3명은 환경부 7급 연구사로 일하고 있다. 그 외에도 정 교수는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변화에 발맞추어 전문 인력을 시기적절하게 배출한 성과를 인정받아 산업통상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NEWS >>>

EVENT

2019 새해 맞이 신년인사회 열려

2019년 기해년(己亥年) 새해를 맞이해 아주 가족이 함께 자리하는 신년 인사회가 마련됐다. 1월2일 종합관 강당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는 교직원과 학생들이 참여해 서로 인사를 나누고 덕담을 주고받는 자리로 마련됐다. 학교법인 대우학원, 아주대와 아주대병원의 구성원들이 참석했다. 박형주 총장은 신년 인사말을 통해 "지난 한 해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최선을 다해 주신 아주 가족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며 "2019년 새해에도 'Connecting Minds'를 기치로 우리의 발걸음을 이어가자"고 전했다. 박형주 총장은 2019년 한해 동안 ▲기초교양-전공 교육 개편 ▲첨단 인터랙티브 강의실-복합 문화공간-온오프라인 도서관을 갖춘 50주년 기념관의 건립 ▲연구지원 제도 개편 ▲신임 교원 정착 연 구비 확대 ▲우즈베키스탄으로의 이공분야 교육-연구모태 전수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총장은 이어 "오는 2023년 개교 50주년을 맞이하는 아주는 이제 미래 10년의 청사진을 담은 발전계획을 수립해 시행해 나가려 한다"며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자신감과 희망으로 변화의 시기를 넘어가자"고 덧붙였다. 총장 신년사에서 이어 ▲정영기 교수회 의장 ▲김주용 노조지부장 ▲윤인석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 위원장 ▲오성근 산학부총장의 인사말이 이어졌다. 이후 구성원 대표가 함께 떡케이크를 자르고, 구성원들이 미리 참여한 새해 소원 떡담 추첨이 이어졌다.

AWARD & SEL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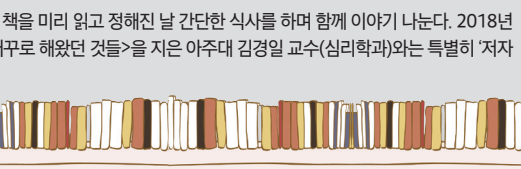
정이숙 교수, 식품의약품안전처 장관상



정이숙 교수(약학대학)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장관상을 수상했다. 정이숙 교수는 지난 12월16일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32회 '약의 날' 행사에서 약학연구 분야 및 의약품 개발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을 받았다. '약의 날'은 대한약사회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글로벌의약품산업협회, 대한약학회, 한국병원약사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등 7개 단체가 주최하고, 복지부와 식약처가 후원하는 행사다. 이 행사는 매년 11월에 개최되며, 제32회 행사는 '좋은 약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열렸다.

책 읽는 즐거움 총장 Book Club

총장 북클럽은 학기 중 매달 열리는 모임이다. 총장과 학생, 교직원들이 한 권의 책을 미리 읽고 정해진 날 간단한 식사를 하며 함께 이야기 나눈다. 2018년 2학기에는 <모두 거짓말을 한다> <렌의 힘>을 함께 읽었다. <어쩌면 우리가 가꾸고 해왔던 것들>을 지은 아주대 김경일 교수(심리학과)와는 특별히 '저자와의 만남'을 통해 만나봤다.



EVENT

아주대·생산성본부, 4차 산업혁명 인재양성 MOU

아주대와 한국생산성본부(KPC)가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인재양성에 나선다. 두 기관은 지난 12월18일 오후관에서 4차 산업혁명 분야 인재양성과 산학협력 연계교육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박형주 총장과 노규성 한국생산성본부 회장이 자리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양측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인재양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우수 산업인력 개발 양성을 위한 교육 훈련 및 컨설팅 ▲공동 연구개발 조성 및 공동 실험 ▲국가공인 자격 및 국제자격의 취득 및 보급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적 교류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게 된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서 4차 산업혁명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한 협약도 함께 체결됐다. 아주대 LINC+사업단과 한국생산성본부 4차 산업혁명추진단이 ▲산학공동 기술개발 및 산업체 재직자 교육 ▲창업·현장실습 교육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DONATION

한마음장학회, '파란사다리'에 장학금 쾌척

공공정책대학원 동문들로 구성된 한마음장학회가 장학금 3700만원 상당을 쾌척했다. 장학금 전달식은 지난 11월27일 오후관 총장실에서 열렸다. 석호현 한마음장학회 회장이 장학회를 대표해 박형주 총장에게 기부금을 전달했다. 한마음장학회가 이번에 기부한 장학금은 총 3720만원이다. 장학회는 파란사다리 기금에 3000만원, 외국인 학생 생활 장학금에 720만원을 사용했다며 이를 쾌척했다. 파란사다리는 여러 형편 탓에 해외 경험을 하기 어려웠던 대학생들을 위한 해외 연수 프로그램이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주관하며, 아주대는 수도권 주관대학으로 선정되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2018년 여름 방학에도 아주대 학생 80명과 인근 지역 대학생 20명을 선발해 미국과 중국의 명문 대학으로 4주 간 교환한 바 있다. 이 사업은 아주대가 2015년 시작한 "AFTER YOU 프로그램 - 아주 글로벌 캠퍼스"를 모태로 설계됐다.

파란사다리기금	30,000,000원
외국인학생 생활장학금	7,200,000원
합금	37,200,000원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처럼...

평생 모은 재산 기부, 시신까지 모교에 기증



故 황필상 기계 73

아주대 1회 졸업생으로 평생 모은 재산을 모교에 기부했던 황필상 박사가 2018년 마지막 날 새벽 세상을 떠났다. 향년 71세. 림프암 진단을 받고 투병하다 연말 자택에서 부인, 두 딸과 함께 시간을 보낸 뒤였다.

황필상 박사는 1947년 7남매 가운데 막내로 태어났다. 충북 충주에 살던 가족은 1948년 서울로 올라와 한 빈민촌에 자리를 잡았다. 부모님이 직조기 몇 대를 두고 양 10마리를 기르며 7남매를 키웠지만 가난을 벗어나기는 어려웠다. 고등학교 졸업 후 양을 기르며 양젖을 배달하던 청년 황필상은 군에 다녀온 뒤 다시 연필을 잡았다. 이력서를 들고 이리저리 뛰었지만 직장을 구하지 못한 채 자살까지 떠올렸던 깊은 좌절 끝에였다. 새벽녘 잠깐 책상에 엮드린 채 눈을 붙이고 다시 공부하는 생활을 1년, 그는 아주대학교(당시 아주공업초급대학) 기계공학과에 합격했다.

27세의 나이에 대학 신입생이 된 그는 7~8살 어린 동기와 함께 생활했다. 4개 학과, 입학정원 280명의 규모였던 당시 아주대학에서 그는 늘 든든한 형님이자 동무였다. 장학생으로 아주대에서 학업을 마친 황필상은 지도교수의 권유로 프랑스 국비 유학을 떠난다. 1978년 1월, 막 결혼식을 올린 뒤였다. 그리고 모국을 떠난 지 6년 만인 1984

년, 박사 학위를 가지고 돌아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로 자리를 잡았다.

교수로 일하던 그는 1991년, 자리를 박차고 나와 또 다른 도전에 나선다. 수원 교차로라는 생활정보지를 창간해 사업가의 길에 도전한 것. 회사는 꾸준히 성장세를 이어갔고 10년 만에 황동문은 200억대 자산가가 됐다. 사업가로서 탄탄대로를 이어가던 차, 황 박사는 '넘쳐나는 것, 내 것



2014년 열린 '기부자 영예의 전당' 제막식에서 안재환 당시 총장과 함께한 황필상 박사.

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덜어내겠다는 결심을 밝힌다. 2002년 7월, 회사 주식 100%(200억원 상당)를 아주 대학교에 기부하겠다고 결정한 것이다.

“넘쳐나는 것은 언제나 덜어내야죠. 넘치는 재물이 부담스러워 사회에 환원하는 것뿐입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산다면 행복합니다. 저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몸을 낮추는 물처럼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 2002년 8월31일 교수신문 인터뷰 중 -

그의 뜻을 기반으로 장학재단이 설립되었고, 그 후 수년간 재단의 수익금으로 아주대 학생과 교수들이 장학금과 연구비를 지원 받았다. 그러던 어느 날 황 동문에게 날벼락과 같은 증여세 납부고지서가 날아든다. 증여세 140억원 부과, 2008년 9월의 일이었다. 수원세무서는 “장학재단에 대한 기부라도 현금이 아닌 주식일 경우, 무상 증여에 해당한다”며 증여세를 부과했다. 기업이 계열사를 지배하기 위한 방법으로, 재단을 편법으로 세우고 주식을 넘기는 행태를 막기 위해 도입된 법 규정이 기반이 됐다. 장학재단과 황동문은 이에 맞서 소송을 제기했다. 법적 공방은 7년 넘게 이어졌다. '선의의 기부'에 대한 무리한 법 적용이라는 여론이 빚발치는 가운데 2017년 4월, 대법원은 결국 황필상 동문의 손을 들어줬다. '고액 체납자' 명단에까지 올랐던 지난한 다툼 끝이었다.

황필상 박사는 눈을 감았지만, 그는 여전히 모교 아주대학교와 함께다. 그가 오래 전 아주대병원에 시신 기증을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켰기 때문이다. 황 박사는 1994년 개원한 아주대병원에 가장 먼저 시신 기증을 약속한 제1호 시신 기증 서약자다.

황필상 동문 1947~2018

- 아주대학교 기계공학과 1회 입학 1973
- 아주대 총동문회 초대 회장 1977~1978
- 프랑스 국립과학응용연구소 박사 1983
- 한국과학기술원(KAIST) 기계공학과 교수 1984~1991
- 수원교차로 창업 1991
- 수원교차로 주식 사회 환원-장학재단 설립 2002
- 구원(九元) 장학재단 제3대 이사장 취임 2005

저서

- 아름다운 사회 칼럼 모음집 총4권
- 당신은 무엇을 찾았는가!
- 어머니 모습은 보이지 않아도 말씀은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遺書

거의 3년동안 생각만 하고 있던 일을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실현하려 하니 자못 엄숙해집니다. 매일 쓰고 싶었던 유서, 이렇게 정리해봅니다.

하나
내가 죽거든 내 시신 중 필요한 부분은 필요한 사람에게 주시오 내가 그동안 너무 후사시켰기에 남은 부분의 상태가 얼마나 양호할런지는 나도 모르겠소만, 그래도 그나마 쓸만한 게 있다면 아낌없이 주시오 그리고요 남은 부분이 있다면 흔적도 없이 태우시오 그래도 한줌 재로 남거든 대한민국 어디든지 뿌리고 내 흔적은 조금도 남기지 마시오
내가 남기는 그 어떤 물질도 나를 위해 쓰지 말고 남을 위해 쓰시오 단 한 장의 종이까지도 그리고 나도 대한민국을 너무 사랑했기에 못난 대한민국이 안타까워 울기도 했다고 말해주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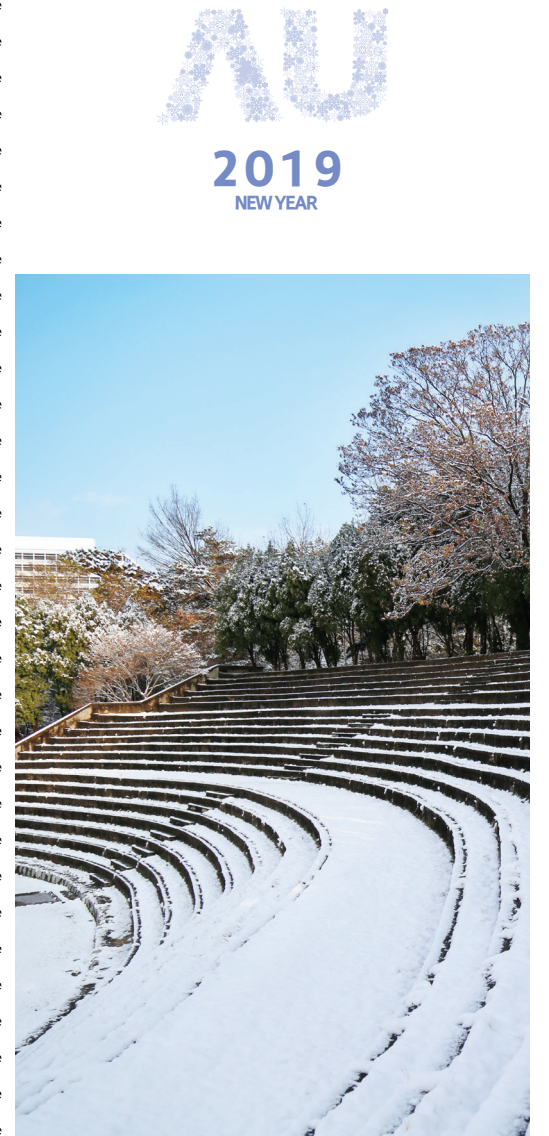
둘
사랑하는 내 딸들!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은 정신밖에 없다. 세상은 결코 만만치가 않다. 그러나 두려워 할 것도 없다. 마음을 비울수록 그만큼 너희들의 장래가 밝아진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기 바란다. 너희들도 언젠가는 늙을 것이니 젊어서부터 노후를 준비하라. 주어진 일에 감사하면서 너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

창의력을 키워라! 용기를 잃지 마라! 책을 읽어라! 시간을 아껴라!
그리고 역력이 있거든 인정을 베풀어라! 착해라! 남을 위해서도 살아라!
나도 내 방법대로는 너희들을 사랑했지만 너희들이 많이 불편했을 것으로 안다. 그러나 인간은 단련을 통해서 더욱 성숙되는 것이니 내 방법에도 좋은 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라. 크고 넓게 생각하라!

셋
내 이웃아!
사랑합니다. 즐시다. 국가가 잘 살도록 헌신합니다. 100년 인생도 순간이로오!

마지막으로
나의 사랑하는 아내!
모든 면에서 당신보다 못한 나를 만나 사람 만드느라 고생했신 미안하고 정말 고맙소.

황필상
유가족의 동의를 얻어 전문을 실었습니다.



CREDITS		
PUBLISHER	president	박형주
CHIEF EDITOR	office of communications moc.	남경호
EDITOR	office of communications	이슬
PHOTOGRAPHER	digital media	김도형
	seol chong studio	박소영 권준하 김설총
ART	office of communications alaska design dept.	김진숙 최귀명 유서연 신혜원
	alaskaindigo	장준우 지환섭
SUPERVISOR	office of communications	이건



Copyright © 2019 Ajou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
 <AJOUNSIGHT> 이간행물 내용중 상의 후 복제 및 전재를 환영합니다.
 1649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Tel.031-219-2114